

고 리을설동지의 장의식 엄숙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장의식에 참가하시었다



1 번 에 서 계 속

우리 혁명의 1세, 항일의 로투사들을 제일로 아끼고 내세워주시며 로당익장 하도록 끝없는 활력을 부여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서 리을설원수동지는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수명결사용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깊이 심어주며 생을 빛나게 마무리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을설원수동지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고 고인의 명구를 찾으시어 로혁명가의 삶을 최상의 경지에서 값높이 빛내어주시며 투사가 지녔던 충실성과 혁명적신념을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새겨주시었다.

인민군장병들은 크나큰 비애에 잠겨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의 수뇌부결사용위

정신으로 만장약된 백두산혁명강군,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한생을 다 바친 고인과 영결하시었다.

각계층 근로자들도 한생을 언제나 변심 없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진심으로 따랐으며 자기 수명, 자기 명도자들을 어떻게 모시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준 리을설원수동지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시하시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온 로혁명가를 잃은 애석한 마음을 금할수 없어 거리를 오가던 시민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고인의 명구를 바래왔으며 리을설원수동지의 명구를 실은 장갑차는 통통네거리, 버드나무거리, 문덕거리를 서서히 지나갔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은 항일의 로투사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죽어도 버리지 않을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이 땅위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 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결의를 다짐하시었다.

명구를 실은 장갑차는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도착하시었다.

고 리을설동지의 반신상이 세워져있는 대성산혁명렬사릉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작위군명예 의장대가 정렬해있었다.

영결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영결식에 참가하시었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고인의 유가족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일군들이 참가하시었다.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애도사를 하였다.

추도곡이 주악되고 조총이 발사되는 가운데 고인의 유해가 안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렇게도 념원하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한채 애석하게도 우리결을 떠난 리을설원수동지에 대한 복받치는 애도의 정을 안으시고 군대의 책임일군들, 유가족들과 함께 고인의 유해에 흠을 없으시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리을설원수동지의 반신상에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 열혈의 충정을 다하여온 고 리을설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시었다.

리을설원수동지는 비록 심장의 고통을 멈추었으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바친 혁명렬사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투사의 고귀한 업적은 길이 빛날 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